



2022학년도 수능 기출

[18~23]

—〈보기〉—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가)에 대한 〈보기〉가 제시됩니다. ‘유폐된 지역’이라는 건 부정적인 공간을 의미해요. 그런 곳에서 고향에 대한 시를 창작했습니다. 여기서 ‘고향’이 곧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막힌 공간에서 고향을 떠올리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날 수도 있겠네요. 유페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더라도 고향을 인식하고 떠올린다는 점은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또 시상 전개에 대한 정보도 줍니다. ‘봄’은 긍정적인 계절, ‘겨울’은 비극적인 계절로 형상화된다고 하네요. 계절에 대한 정보가 드러난다면 거기에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비극적으로 그려지니, 일제 강점기의 비극적인 모습으로 연결되겠네요.

*유페되다 : 아주 깊숙이 가두어져 놓이다.

다른 〈보기〉가 하나 더 있지만 표현에 관한 이야기이니, 굳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

구겨진 하늘은 묵은 얘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종이 쳐.

→ 산기슭에서 황혼이 묻혀오고, 호롱불이 켜질 때면 고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가 제시되고 있으니까요. 고향을 그리는 것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어요.

떡엄 떡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물 캐러 간 가시내를 중심으로 고향의 모습이 형상화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림 조각’은 당연히 고향을 그린 묵화를 가리키겠죠?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슬레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잎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 역시나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나가서, 몇 달 동안 잎이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슬슬 고향의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돈 벌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부정적이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 자체에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젊은이는 젊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 이제 확실히 부정적인 상황이 드러납니다.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간대요. 참새가 열심히 가꿔 놓은 이삭을 물고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보기>의 내용을 떠올린다면 수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린 놈’은 복극을 꿈꾸고, 늙은이들은 싸웁니다. 늙은이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 사이에서 아이는 꿈을 꾸니 썩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가꾼 이삭을 빼앗긴 상황과 더불어 어른들의 갈등, 아이들이 꿈을 꾸는 장면을 보고 전반적인 시적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정적이예요.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洞里)의 밑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 이제는 ‘한겨울 밤’의 상황을 제시합니다. 강물이 ‘얼어붙는’ 상황이니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상황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이육사, 「초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입니다. 화자가 ‘고향’을 떠올린다는 그 점과 마지막에 부정적인 현실을 ‘겨울’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 정도는 잡고 읽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나)

오늘, 복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 시작부터 중요한 구절입니다. 화자는 복창을 열고, ‘산을 향하여’ 앉아요. 즉, 산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산의 이미지를 인간과 대비하면서 제시합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산은 그렇지 않대요. ‘태고로부터’ 푸르다고 합니다. 변함 없이 푸르다는 것이죠. 화자가 ‘산’에 주목하고, 그 산을 지향한다는 점을 꼭 파악하셔야 합니다.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 화자의 태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화자는 자랑하지 않는 ‘겸허한 산’을 ‘사랑’하고, 평생 산을 ‘보고 배우다’라고 합니다. 산을 지향한다는 점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꿀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너무 대놓고 산을 좋아합니다. 이젠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산을 고향이라 여기며 그리워합니다. 지향하는 것이죠. 조금 주목할만한 표현이 있다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이라는 구절입니다. 선지에서도 물어봤지만, 미리 간단히 생각해 보자면 ‘이승’과 ‘저승’ 모두에 산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즉, 화자는 이승과 저승 모두에서 산을 지향하겠다는, 그만큼 산이 좋다는 그런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관식, 「거산호 2」-

(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풀 베는 자가 낫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키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땅이 낳고 하늘이 기르느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온 들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줄릴

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 꽃에 대해서 생각하는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모란과 해당화를 비교해보면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른 헤아림 없이 똑같은 말이에요. 땅이 낳고 하늘이 기르는 똑같은 꽃이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해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종략 이후를 보고 바로 캐치하시면 됩니다.

(종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낮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에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뽕뽕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 네, 똑같은 꽃인데도 어떤 건 부호가의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낮에 베어진다고 해요. 꽃의 종류에 따라 다른 대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 똑같은 꽃임에도 불구하고요.

어!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造化)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낳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서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 여기서 직접적인 글쓴이의 태도가 제시됩니다. 다 똑같은 풀을 다르게 대우하는 건,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어 차이 없이 만들어 두었는데, 인간이 '소원함'과 '친함'을 가지고 풀을 다르게 대우합니다. 글쓴이는 이렇게 풀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지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풀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인간)'에게는 감정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다르지 않은 '소의 먹이가 되는 풀'과 '나비가 앉는 풀'을 다르게 본다는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찌 달리 보겠는가'라고 하며, 다르지 않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 이옥, 「담초(談艸)」-

* 요황과 위자 :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③

①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니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향의 이미지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이어지지는 않죠.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나)의 핵심은 산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회의는 드러나지 않아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조금 넓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인간'을 변하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인식을 엿볼 수는 있어요.

③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네, 꽃이나 풀 같은 자연물과, 그걸 규정하는 인간에 대해 살펴봅니다. 자연물은 천함과 귀함이 없는데, 그걸 인간이 정한다고 얘기하죠. 그런 인간의 태도에 대해 성찰하고 있습니다.

④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두 작품 모두 인생에 대한 무상감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는 고향을 떠올리면서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는 작품이고, (다)는 자연물에 자기 마음대로 가치를 매기는 인간의 태도를 성찰하는 작품입니다.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 이것도 세 작품 모두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가)는 심지어 마지막에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냅니다. (나)에는 산을 지향할 뿐, 산이 미래에 좋아질 거라는 식의 낙관적 전망이 없습니다. (다)도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태도를 성찰하고 있을 뿐이에요.

19. <보기>를 참고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③

— <보 기> —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 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① [A] :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네, 산기슭에서 날이 저물고 호롱불이 켜질 때 고향을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시상이 전개되는 그 흐름을 잘 캐치했어야 해요.

② [B] :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네,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을 보면서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때 그림 조각은 고향을 그린 목화일 거라고 했죠? 고향을 떠올린다고 볼 수 있어요.

③ [C] :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정경은 '풍년'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내강에는 풍년이 들었다고 생각할 만한 대목이 없죠. 오히려 '씨레나무'가 밀려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제시돼요. 또 시의 맥락상 젊은이들이 '돈을 벌러' 갔다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제시되는 것을 같이 생각한다면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겠어요.

④ [D] :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녀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네, 피로 가곤 이삭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 상황이 드러나니,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꾼다는 것은 북극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지향점은 결실이 부재한 현재 상황과는 다른 세계이겠죠.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꾼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⑤ [E] :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네, 이건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선지네요. <보기> 내용 그대로입니다. <보기>에서 겨울을 통해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 현실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E]에서 제시된 겨울의 풍경도 '강물조차 얼붙'는 그런 상황이니 충분히 악화되는 현실로 해석할 수 있죠.

20.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②

- 기본적으로 화자가 산을 지향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면서 선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 네, 작품 해설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산'은 태고로부터 푸르다는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불변하는 존재죠. 반면 인간은 자주 바뀌는 존재이고요.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 '산'이 적극적 의지를 가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은 '겸허'하고, '고요하고 너그러운' 존재로 그려집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③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 역시나 작품 해설에서 간단히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일단 '산'은 화자의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뻗쳐 다리를 놓는 존재입니다. 화자에게 있어서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산'이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할 대상으로 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④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 네, 산의 품이 화자 자신의 고향이라고 하며,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직접적으로 시구에 제시된 표현을 그대로 묻는 선지입니다.

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 '산에서도 산을 그리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화자는 현재에도 산에 있으면서 계속 산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21.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①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 보다는 쓰임새에 기준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 형체나 쓰임새에 무관하게 꽃이 다름이 없다는 게 글쓴이의 핵심적인 태도였습니다. 쓰임새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만약 쓰임새가 기준이라면, 나비가 앉는 풀과 소의 먹이가 되는 풀이 다르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② 화초의 '귀함'과 '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 화초의 귀천은 본성이나 이름과 무관하게 사람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지만 그걸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했으니까요! 인간에게만 소원함과 친함이 있습니다.

③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②번 선지와 같은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풀이나 꽃을 낳는 건 하늘이지만, 그걸 영화롭게 하는 건 '인간'입니다.

④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네, 하늘은 모두 똑같이 낳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움이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열이 나뉘는데, 그건 인간이 나누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소원함과 친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⑤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 오히려 인간의 감정에 '소원함'과 '친함'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도모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 때문에 우열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22. **목화와 북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 ① (가)에서는 '목화'와 '박쥐 노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목화'는 말 그대로 목으로 그린 그림이니까 어두운 분위기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박쥐 노래'는 황혼, 호롱불을 키는 행위로 연결되어 저녁 시간대의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나)의 화자는 북창으로 산을 바라보고, 산의 '꿈'에서 '자라고' 그 안에 '묻힌다'고 해요. 산의 아늑한 분위기로 이어집니다. 또, 산이 고요하고 너그러운 속성을 지녔다는 점을 같이 생각한다면 더욱 아늑한 분위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② (가)에서 '목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북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 '목화'는 고향을 그린 그림입니다. 즉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화자가 고향에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나)는 확실히 틀렸네요. '북창'은 화자가 지향하는 산을 바라보는 공간이고, '저승의 밤' 또한 절망적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한 해석은 20번의 ③번 선지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선지의 해석을 치우고 생각해볼게요. 화자는 산을 지향하고, '저승의 밤'은 '이승의 낮'과 함께 산이 이어주는 대상입니다. 즉,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 이승과 직접 이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절망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③ (가)에서 '목화'에 '솜이 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 '목화'는 고향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목화'가 솜이 칠만큼 오래 되었다고 표현하니, '세월의 깊이'를 드러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 산을 바라보기 위해 북창을 '오늘' 열었다는 것이, 화자의 인식 변화 시점으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인식 변화라고 하려면, 이전까지는 산을 지향하지 않다가, '오늘' 북창을 여는 순간부터 산을 지향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화자가 이전에는 산을 지향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운다고 하는 구절을 미루어 본다면 이전에도 산을 지향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태도가 변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해요.

- ④ (가)에서 '목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 계속 같은 지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목화'는 고향을 그린 그림이고 그게 그림 '조각'으로 제시됩니다. 그럼 당연히 분절된 이미지로 간주할 수 있겠죠. 또 (나)에서 북창을 열고 산을 바라보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산)과 이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을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분리된 세계는 '장거리'라고 보아야 합니다. '장거리'를 등지고, 북창을 열고 '산'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⑤ (가)에서는 '묵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 (가)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그림 조각(묵화)에서 '모매꽃'의 대상으로 이어진 후 그게 '부끄러움'의 정서와 이어집니다. 빈 바구니를 차고 오는 게 부끄러워서 '모매꽃'이 피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나)는 완전히 틀렸네요. 화자는 북창을 통해 산을 바라보고, 그 산을 보며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산의 모습을 지향하는데, 보옥에 대해 '안타까움'을 담아낸다고 볼 수는 없죠.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④

— <보 기> —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 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 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네, 너무나 당연합니다. 황혼이 묻혀 오고, 호롱불이 켜지니, 저녁 시간대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호롱불을 켜는 것도 시각적 이미지가 맞습니다.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돈을 벌기 위해 젊은이들이 배를 타고 나갑니다. 객지로 떠나죠. 일단 돈을 벌려고 뗏목을 타고 나가는 것부터 삶의 불안정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착된 삶이 아니라 객지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심지어 나가는 것도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고 '뗏목'을 타고 항구로 '흘러' 갑니다. 불안정함을 연결할 수 있어요. 시의 맥락을 따져도 좋습니다.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제시되니까요.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장거리'는 화자가 등지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뒷 구절에서 사람은 변하지만, 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근거로 산을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장거리는 인심(사람)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는 장거리의 의미를 생각하면 또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장/거리는 말 그대로 '장(시장)'이 늘어난 '거리'를 의미합니다.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공간이니, 이해관계가 얽힌 세속적 삶의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장거리'의 의미를 잘 몰랐다고 해도, '장거리'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는 판단할 수 있어요. 시에서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았어요. 산이 지향점이라고 했었죠? 그럼 등진 '장거리'는 지향하는 곳이 아니라 지양하는 곳이 됩니다. 최소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곳이라고는 파악하셨어야 해요. 그렇지만 '장거리'가 어려운 단어도 아니니 기본적으로 의미를 판단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적막한 분위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눈앞의 봄바람'을 지킨다고 하니, 봄바람이 부는 그런 공간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적막하지는 않네요. 또 인간과 가까운 공간이라는 점도 확실치 않습니다. '부호가의 장막 안'이니 인간과 가까운 공간이라고 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인간'을 가리키는 시적 대상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간과 가까운' 공간이라 보기 어렵기도 해요.

확실한 건 '적막한 분위기'가 틀렸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인간과 가까운 공간'에 대한 해석은 나눌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주는군.

→ 네, 소의 먹이로 이용되는 풀은 하찮게 취급되는 풀이고, 나비가 앉는 풀은 귀하게 여기는 풀이죠. 그리고 그걸 '소의 먹이', '나비가 앉는 풀'과 같은 구체적 이미지로 제시합니다.

[24~27]

—〈보 기〉—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힘의 우열관계가 발생한다.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권력 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합니다.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거나 소시민적인 면모를 보이는 인물이 누군지가 중요하네요. 그 인물과 관련된 사건에 주목하면서 내용을 읽어 봅시다.

여기서 허구적 권력 표지를 이용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그냥 허세를 부린다는 말이에요. 허세를 부리다 그게 먹히면 자신감을 얻고 그게 먹히지 않으면 소시민적 면모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허세를 부리는 인물이 누군지 그걸 파악하면서 그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을 읽자는 겁니다.

김달채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보르르 집으로 달려가던 목은 습관을 버리고 밤늦도록 하릴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였다.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공중변소나 포장마차 안에서, 백화점에서 사지도 않을 물건을 흥정하거나 정류장에서 토크 아니면 올림픽 복권을 사면서, 그리고 행인에게 담뱃불을 빌거나 더욱 과감하게는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길을 묻는 시늉을 하는 사이에 마주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달채 씨는 실수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렷한 목적의식을 드러내기도 해 가며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눈에 과연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하여 상대방이 우산 입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을 일삼아 계속해 나갔다. 참으로 긴장과 전율이 넘치는 뼈근한 나날들이었다. 구청 호적계장의 직위에 오르기까지 여태껏 전혀

물랐던 세계가 구청과 자기 집구석 바깥에 따로 있음을 그는 우산을 통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다.

여기서 '김달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애가 우산을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우산에 따라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산을 인식한 사람의 대우가 달라진다는 건 힘의 우열 관계가 달라진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우산이 <보기>에서 말한 '허구적 권력 표지'인가 봅시다. 왜 우산이 힘의 우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기>의 내용과 작품의 맥락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몇 가지 결론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첫째는,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거개의 서민들은 의외로 쉽사리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이었다.

둘째는, 상대방이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이었다. <일껏 하던 이야기를 똑 그치거나 얼렁뚱땅 말머리를 돌리는 등으로 지은 죄도 없이 공연히 겹부터 집어먹고는 궤궤죄한 물골의 자기한테 갑자기 저자세로 구는 것이었다. 밤늦도록 수고가 많다면서 한사코 술값을 받지 않으려 하던 어떤 포장마차집 주인의 경우가 단적인 예였다.>

여기서 '우산'이 어떻게 허구적 권력 표지로 이용되는지 드러냅니다. 우산을 무전기인 척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태도를 바꾼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태도를 바꾸는지 관련된 일화도 제시합니다. 얘기를 하다가 겹먹고 이야기를 멈추거나, 술값을 받지 않으려 하는 등의 저자세로 나온다는 내용이네요. 이 경우는 우산을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김달채 씨'가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사실 자기는 아무 것도 없는데 우산을 무전기로 속이면서 괜히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셋째는, 노골적으로 손에 쥐고 보여 줄 때보다 그냥 뒤꽂무니에 꿰 찬 채 부주의한 몸가짐인 척 하면서 옷웃 자락을 슬쩍 들어 케이스의 끝부분만 감질나게 보여 주는 편이 오히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반응도 민감하다는 사실이었다.

김달채 씨는 그러잖아도 짧은 머리를 더욱 짧게 깎았다.

옷차림도 낡은 양복에서 스포티한 잠바 스타일로 개비했는가 하면 구청 밖에서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버릇했다. 달채 씨는 것처럼 달라진 모습으로 잠만 생기면 하릴없이 길거리를 나다니며 청명한 가을날에 우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떠보는 색다른 취미에 점점 깊숙이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네, 그렇게 우산으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은근히 밖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저자세로 구는 걸 즐기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감을 얻는 데에 취미가 생겼나 봅시다.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감상해봅시다. 일단, 사람들이 무전기를 보고 겁을 먹는다는 점에서 시대적 배경을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사방에 경찰 같은 사람들이 깔려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는 시절인 듯합니다. 7~80년대의 그런 시절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 상황에서 머리로 짧게 깎고 선글라스도 끼고 그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사복 경찰이나 특정 정부 기관 사람인 척 하면서 그런 위엄(?)을 뽐내고자 하네요. 그렇게 외양을 꾸미고 더욱 더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는 거예요. 마치 진짜 자기가 감시자인 양 행세를 하면서요.

여기까지 이해하는 게 어렵다면, 머리를 깎고, 스포티한 잠바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이런 외양을 보고 '무전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의 이미지를 연결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최소한 '김달채 씨'가 무전기로 사람들을 속이는 데에 심취해서 저런 모습으로 다닌다는 점만 체크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중략)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까닭 모를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 한 건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일대 사건을 만날 듯싶은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다른 행인들이 종종걸음으로 달아나는 방향과는 정반대 편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그대로의 살벌한 풍경이었다. <깨진 보도블록 조각이나 돌맹이들이 인도와 차도 가릴 것 없이 사방에 흩어져 나뒹굴고 있었다. 시커먼 그을음 연기를 피워 올리며 불타는 자동차와 창유리가 박살 난 건물도 보였다. 김달채 씨는 주체 못할 지경으로 쏟아지는 눈물 콧물도 돌볼 겨를 없이 여전히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최루 가스에 심하게 오염된 지역을 향해 가까이 접근했다. 중무장한 전경대에 의해 도로가 완전 차단되어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달채 씨는 구경꾼들 뒷전에서 작은 키를 한껏 발돋움하고는 시위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다.>

중략 이후에서는 시위 현장으로 달려가는 김달채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김달채는 시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흥분과 기대감을 가진 채 달려갑니다.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거라면서요. 그렇게 도착한 시위 현장은 아주 난장판이죠. 최루 가스도 난리가 났고, 전경들이 도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선글라스’를 끼면서 막 달려가네요.

여기서 왜 김달채가 흥분하고 기대감을 갖고 달려가는지 심리를 대략적으로 유추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중략 이전의 사건들을 떠올리면 아주 쉽습니다. 네, 또 무전기인 척하면서 우산(케이스)을 써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것이겠죠. 인물의 심리를 체크하고 이해하면서 사건을 이해해봅시다. 계속 볼게요.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저쪽 건물 모퉁이에서 어기찬 함성이 아직도 기세를 올리는 중이었다. 사복 경찰관들한테 붙잡혀 끌려오는 학생의 모습이 구경꾼들 어깨 너머로 내다보였다. 달채 씨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앞서사람들 틈바귀를 비집고 전면으로 썩 나섰다.

“이봐요, 거기!”

김달채 씨는 창문마다 철망이 쳐진 버스 안으로 학생들을 마구 밀어 넣는 사복들을 향해 느닷없이 목청을 높였다.

“아직도 어린애야! 다치지 않게 살살 줌 다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지 김달채 씨 자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당신 뭐야?”

옷깃에 비표를 단 사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달려와서 김달채 씨의 가슴을 때밀었다.

“나 이런 사람ियो.”

김달채 씨는 엉겁결에 잠바 자락 한끝을 슬쩍 들어 뒷주머니에 꺾 찬 우산 케이스를 내보였다. 하지만 상대방 청년은 그런 물건 따위는 애당초 거들떠볼 생심조차 하지 않았다.

“당신도 저 차에 같이 타고 싶어? 여러 소리 말고 빨리 집이나 들어가 봐요!”

이른바 닭장차에 어린 학생들과 함께 실리고 싶은 생각은 물론 털끝만큼도 없었다.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이 우산을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도리 없는 노릇이었다. 김달채 씨는 남의 채마밭에서 무 뽑아 먹다 들킨 아이처럼 무르춘한 꼬락서니가 되어 맥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 윤홍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역시나 우리가 생각한 대로 김달채는 우산 케이스를 써먹어 봅니다. 그런데 사복 차림의 경찰관(청년)에게는 정말 씨알도 먹이지 않습니다. 괜히 진짜 자기가 권력자인 양 행세하다가 진짜 권력자(경찰관)를 만나고는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허구적 권력 표지(우산 케이스)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괜히 학생 살살 다루라고 한 소리했다가, 험한 꼴만 당할 뻔 했습니다. 중략 이전과는 다르게, 우산에 속지 않는 인물이 등장하고, 거기서 대우받지 못하는 김달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24.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 [A]에는 우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게 된 김달채의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별거 없으니 이것만 기억하고 선지 판단 해봅시다.

- ① 중심인물이 알지 못하는 사건을 제시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중심 인물은 김달채일 겁니다. 그런데 [A]에서는 김달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김달채가 겪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중심인물이 알지 못하는 사건을 제시한다는 건 틀렸습니다.

- ②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회상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 공간 이동에 따른 내면 변화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버스, 공중변소, 포장마차 다양한 공간이 드러나긴 하지만 이 공간을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냥 그런 공간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다는 차원에서, 공간을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 ③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역시나 동시적 사건들이 아닙니다. 각각 김달채가 한 번씩 겪었던 일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김달채가 두 명이 아닌 이상 동시에 두 공간에서 우산을 보여주며 실험을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 ④ 한 가지의 목적으로 수렴되는 인물의 의도적인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

→ 네, 우산을 갖고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행위들이 쭉 나열됩니다. 우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 내용이죠. 정답이네요.

- ⑤ 상대를 달리하여 별이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여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 갈등이 심화되는 장면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냥 김달채가 경험한 일들을 쭉 나열할 뿐이에요. 거기에 반응해서 사람들이 화를 내며 김달채랑 싸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2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③

- ① 거리를 배회하며 새로운 습관을 익히려는 김달채는 생활의 활기를 찾기 위해 비 오는 날을 기다린다.

→ 일단 우산을 갖고 거리를 배회하는 건 맞는데, 비 오는 날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애초에 우산을 용도에 맞게 쓰는 게 목적이 아닌걸요. 우산을 무전기인 척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비 오는 날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 ② 피조적한 몰골의 김달채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전기를 보여 준다.

→ 무전기를 보여준다는 것부터 틀렸습니다. 무전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산을 무전기인 척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산을 보여주는 행위도, 무시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속이고 그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걸 즐기기 위함입니다. 그게 취미라고 했어요.

- ③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한 김달채는 달아나는 행인들과 달리 시위 현장으로 향한다.

→ 네, 정답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 생각하자 흥분과 기대감을 느끼면서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그게 시위 현장이었죠. 흥미를 갖고 막 찾아가고 있어요. 우산을 보여주려고 그랬겠죠.

④ 시위 진압의 영향으로 고통받던 김달채는 전경대의 위세에 압도되어 구경꾼들 뒤로 물러선다.

→ 전혀 위세에 눌리지 않습니다.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도 선글라스를 끼고 시위 현장으로 달려가요. 그러다 전경대가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구경꾼들 뒷전에서 시위 현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세에 눌려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냥 전경대가 길을 막고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해서 구경꾼들 뒤에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앞으로 나가기도 해요.

⑤ 닭장차에 끌려가게 된 김달채는 건물 모퉁이에서 들려오는 함성에 안도감을 느낀다.

→ ‘김달채’는 닭장차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함성에 안도감을 느끼는 장면도 드러나지 않고요. 그냥 괜히 우산 한번 써먹어 보겠다고 경찰한테 소리치다가, 위협을 당할 뿐입니다. 당신도 차에 같이 타고 싶냐면서요. 아예 틀린 선지네요.

26.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

㉠ 케이스, ㉡ 우산 이상의 것

① 김달채는 ㉠을 그 생김새로 인해 ㉡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 네, 우산을 갖고 사람들을 속일 때 케이스만 감질나게 보여주면 더 사람들이 잘 속는다고 해요. 여기서 속는다는 건 당연히 우산을 무전기로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② 김달채는 사람들로 부터 기대하는 반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의 사용법을 알게 된다.

→ 케이스만 감질나게 보여주는 게 더 잘 속는다고 하죠? ㉠의 사용법을 알게 됩니다.

③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려는 김달채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는다.

→ 무전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서민들만 ㉠에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고 해요. 무전기를 잘 아는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은 우산 케이스를 보고 무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우도 달라지지 않겠네요. 의도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④ 김달채는 ㉡에 익숙하지 않은 ‘거개의 서민들’이 ㉠을 ㉡으로 오인한다고 판단한다.

→ 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우산과 우산 케이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게 이 작품의 핵심이예요!

⑤ ‘사복 차림의 청년’은 ㉡에 익숙하여 ㉠을 이용하여 김달채의 의도를 알아챈다.

→ ㉠을 이용하는 ‘김달채’의 의도를 알아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복 차림의 청년에게는 우산 케이스를 꺼내 보이지만, 상대방 청년은 아예 그걸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요. 우산 케이스를 갖고 뭘 어찌든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김달채의 의도를 알아챈다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우산에 관심조차 두지 않으니까요.

2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

— <보 기> —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혐의 우열 관계가 발생한다.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① 김달채가 각계각층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은, 권력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점에서 김달채가 권력관계를 의식하는 인물임을 드러내는군.

→ 너무나 당연한 해석입니다. 우산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대우가 달라지는지 아닌지 살핍니다. 권력관계를 의식하고 있어요.

② 김달채가 준 술값을 포장마차집 주인이 받지 않으려는 것은,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권력이 인물 간의 우열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임을 보여 주는군.

→ 이것도 아주 당연합니다. 포장마차 주인이 술값을 받지 않는 것은 우산을 무전기로 착각해서 '김달채'에게 저자세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산'이라는 '허구적 권력 표지'로 인한 우열 관계가 형성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이 우열 관계를 만들고 있어요.

③ 김달채가 외양에 변화를 준 것은, 타인의 승인을 용이하게 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권력 표지를 이용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나타내는군.

→ 네, 작품 해설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최소한 애가 우산으로 사람들을 더 잘 속이려고 외양을 꾸몄다는 점은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사람들을 떠보는 취미에 깊숙이 빠져들었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김달채가 외양을 바꾼 것은 우산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외양 변화는 우산으로 사람을 더 용이하게 속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다시 이 말은 허구적 권력 표지(우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태도로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④ 김달채가 사복들에게 목청을 높이며 항의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승인 받은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된 김달채의 자신감을 보여 주는군.

→ 네, 일반 서민들을 속이면서 얻은 자신감이 표출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시위대를 진압하는 사복 경찰들한테 소리치니까요. 사실 '김달채'는 진짜 사복 경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구청 직원에 불과한데 우산 케이스만 믿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우산 케이스로 사람들을 많이 속였으니까,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⑤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학생들과 맺은 유대 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상황 논리를 따르는 김달채의 타산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 일단 '김달채'와 학생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유대감' 자체가 없습니다. 사복 경찰이 같이 차에 타고 싶냐며 위협할 때 서술되는 김달채의 심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학생과 함께 차에 타고 싶은 맘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해요. 또 학생을 살살 다루라고 소리치는 것도 그냥 우산을 믿고 한 행동이지, 학생을 위해서 한 행동은 아닙니다. 또 김달채는 지킬만한 기득권도 없습니다. 한번 소리쳤다가 경찰한테 위협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 소리 듣자마자, 꼬리 내리고 '무 뽀아 먹다 들킨 아이처럼' 맥없이 돌아섭니다. 전혀 기득권자로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죠. 애가 가진 권력은 '우산(케이스)'라는 허구적 권력 표지 하나뿐입니다.

〈보 기〉

「박태보전」은 숙종 대의 실존 인물 박태보의 삶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박태보는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나는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승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는 **가족과 국가에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음으로써 도덕적 영웅으로** 고양된다. 이때 다양한 서사 장치들은 사건의 입체적 전개에 기여한다.

‘박태보’의 인물 정보를 알려줍니다. 박태보는 임금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요. 그럼 작품에서는 박태보가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제시될 테니 그걸 중심으로 이해해야겠습니다.

이때 태보 궐문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정신없이 기절하거늘 좌우 제신이며 일가 제족이 구완하여 겨우 인사 차려 좌우를 돌아보며 왈,
 “이 몸이 명재경각(命在頃刻)이라.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군 등은 태보가 죽거든 죽기로써 간하여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데 이때에 **상소** 중에 이름 올린 제원(諸員)이 모두 이로되,
 “그대는 **죽기로써 간하다** 어명을 입고 사경이 되었으나 우리도 역시 한 탓이로다. 막중한 충을 몰랐으니 무슨 낫이 있으리오.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만 혼자 당하였으니 **죄스럽고 민망하기 측량없노라.**”
 무수히 위로하다가 **형옥(刑獄)으로** 전송하더라. 이튿날에
 형조 판서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대강 직계(直啓)로 올렸더니 상(上)이 보시고 다시 하교하사,
 “**금부로 가두라.**”

아주 박박한 시작입니다. ‘박태보’가 궐문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박태보가 간언을 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을 보니, 왕이 잘못된 결정으로 왕비를 내쫓으려 한 일이 있었고, 거기에 간언을 하다가 벌을 받는 상황인가 봅니다.

숨겨진 사건까지 생각하면서 스토리를 이해합니다. 요약하자면, 박태보가 충신 노릇을 하다, 위기를 겪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형옥으로 갔다, 금부에 갇히는 상황입니다. 왕이 충신인 박태보를 가두려고 합니다.

하시거늘 금부 옥졸이 응위하여 금부에 이르니 만조백관이며 장안 백성이 구름 뒤편 하더라. 이때에 생가 친척이며 **양가 제족이 애연 돌탄하거늘 태보 위로 왈,**
 “인명이 오면 재천이옵거늘 설마 무죄로 죽어 **청춘 원혼이 되리오**마는 **나의 뜻은 정한 지 오래**되었는지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할 길이 없사오니 이 몸이 죽거든 영천수 흐르는 물에 훨훨 씻어 다른 곳에는 묻지 말고 남산하에 묻어 주오면 **죽은 혼백이라도 궐내를 향하여 우리 주상 십하에 복지하여 주야로 간하여 왕비를 다시 환궁하게 하옵** 것이니 아무리 죽은 사람의 말이라 하옵고 저버리지 마시며 부디 명심하소서.”

그렇게 박태보가 금부로 끌려가니, 여러 백성들이 막 모이고, 양가 제족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그러자 박태보가 위로하는데 이 발화가 중요합니다. 박태보는 자신의 뜻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무죄로 죽어’ 원혼이 되오리만, ‘나의 뜻’은 정한지 오래됐고, 변할 길이 없다고 해요. 즉, 자기는 죽더라도 계속 충신 노릇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합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주상에게 밤낮으로 간언하겠다고 해요. 간언의 내용은 역시나 ‘왕비’를 환궁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잘못으로 왕비가 내쫓긴 사건이 있었을 테고, 박태보는 그렇게 쫓겨난 왕비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자 합니다.

금부에 수일잡혀 간혔더니, **상이** 구태여 **왕비를 내치시고 태보는 진도로 정배하라** 하시니라.

태보도 잡혀가고 태보가 환궁하게 하려고 한 왕비도 내쳐집니다, 그리고 태보는 진도로 가게 되네요. 아마 진도로 유배가는 듯합니다. ‘정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벌을 받아 향하는 곳임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유배를 가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박태보의 정배를 따라가려다 되돌아온 박태보의 부인은 꿈에서 남편을 만난다.

한림이 울어 왈,

“내 무죄하여 탕탕한 청천이 감동하사 사생풍진을 다 버리고 전고 충신을 따라 황성으로 구경 가나니, 슬프다! 부인은 기다리지 말고 만세 무양하옵소서.”

하되, 부인이 대경 왈,

“어디를 가시며 기다리지 말라 하시니까? 한림은 그다지독하시오. 첩도 한가지로 가사이다.”

하며 한림의 소매를 잡고 못 가게 하니 한림이 왈, “부인은 안심하소서. 구구한 사정을 어찌 잊으리까? 일후 상봉할 날이 있으리다.”

하고 떨치고 나가거늘 부인 한림의 손을 잡고 따라가니 어떤 남자 십여 명이 의관을 정제하고 서 있거늘 겹연쩍어 방으로 들어왔으며 가만 보니 학발의관(鶴髮衣冠)을 갖춘 어린 제자 오륙 인이 분명하거늘 부인이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박태보의 부인이 꿈에서 박태보를 만나는 장면이 제시됩니다. 여기서 ‘한림’은 맥락상 박태보임을 알 수 있죠. 또 꿈속에서 나온 한림이 자기가 무죄하다는 발언을 한다는 것도 근거가 됩니다. 앞에서 박태보가 간언을 하다 벌을 받는 상황이 제시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부인에게 자신을 기다리지 말고 잘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떠나는 한림(박태보)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만날 일이 있다며 이별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고 꿈에서 깹니다. 내용 자체는 쉽지만, 여기서 한림이 박태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인이 몽사를 생각함에 심신이 산란하여 명월을 대하여 내념에

‘분명 한림이 기사하였도다.’

시비를 데리고 몽사를 설화하더니 이미 동방이 밝았거늘 시부모 당하에 문안차로 나가니, 이화촌에 개 짖으며 문밖에 울음소리 들리거늘 부인이 놀라 문을 열어 보니 한림의 하인 동일이라 하는 사람이 한림의 편지를 드리거늘 대감 부부와 부인이 망극하여 서로 붙들고 통곡하다가 기절하거늘 비복 등이 급히 구완하여 겨우 인사를 분별하는지라.

꿈에 한림이 나온 걸 보고 수상하게 여긴 부인이 시비에게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시부모(박태보의 부모)에게 문안을 갔는데, 박태보의 하인(동일)이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박태보에게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겼나봐요! 어떤 일인지 확인하러 갑시다.

이때에 원근 제족과 만조백관이 다 조문 후에 장안 백성이 뉘 아니 낙루하리오. 이러구러 곡성이 진동하니 어찌 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오. 그 편지를 떼어 보니 하였으되,

‘불효자 태보는 두어자 문안을 부모전에 올리나이다. 천 리 원정에 가다가 과천의 관에서 신병과 심회가 울적하거늘 구천에 들어가오니, 사람의 죄 삼천을 정하였으되 불효한 죄가 제일이라 하였으니 삼천 수죄(首罪) 지었으나 국은을 또한 갚지 못하옵고 중로 고훈이 되어 구천에 돌아가는 자식을 생각지 마옵고 말년 귀체를 안보하시다가 만세 후에 부자지정을 만분지일이나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조금 어렵지만 박태보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태보의 편지에 ‘구천’에 들어간다고, ‘고훈’이 되었다는 표현이 드러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앞에서 사람들이 통곡하던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은 원근 제족과 만조백관이 ‘조문’한다는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을 한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곡성이 진동한다고 해요. 박태보의 죽음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에서, 죽은 자신을 걱정 말고 잘 지내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날 대감이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행할새, 장안 백성이 다 애연하며 구름 뉘듯 하더라. 대감과 판서 애통함이 측량없더라. 초종례로 극진히 한 후에 채단으로 염습하고 도로 집으로 옮겨와 장사를 지내니 일문이 애통함을 차마 못 볼러라.

그렇게 박태보가 죽은 ‘과천’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음에 슬퍼하고,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초종례로 극진히 한다는 말이나 장사를 지낸다는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도 맥락상 장례를 치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설, 이때에 상이 민 중전을 내치시고 태보를 정배 후, 자연 심신이 산란하여 밤이면 성내 성외를 미복으로 순행하시더니 일일은 한 곳에 다다르니 명월은 명랑한데 어떤 아이 오륙 인이 월색 희롱하며 노래하여 즐거워하거늘 상이 몸을 은신하시고 자세히 들으니 그 노래에 하였으니,
 “저 달은 밝다마는 **우리 주상은 불명하야** 충신을 무슨 일로 천 리 원정에 내치시며, 무슨 일로 민 중전은 **외관에** 내치시고 **군의신충 없었**으니 이 부자자효 쓸데없다. 인심은 분명하건마는 **국운이 말세 되어** 백성도 못 할 일을 국가에서 **행하고 한심하고 가련하다.** 사백 년 사직을 뒤라서 불들랴. 이 애야, 저 애야. 흥망성쇠는 불관하다마는 당상 부모 모셨어라. 심산 궁곡에 들어가 초목으로 붓을 적시고, 금수로 벼를 삼아 세월을 보내다가 **성군을 기다리자.**”
 서로 비기며 애연히 가거늘 상이 그 노래를 들으시매 심신이 산란하여 그 아이들 성명을 묻고자 하시니 아이들이 달아나는지라 못내 애연하시며 곧 환궁하시니라.
 - 작자 미상, 「박태보전」-

이번엔 장면이 전환됩니다. 왕이 왕비(민 중전)를 내치고, 박태보를 벌한(유배) 뒤 아이 오륙 인을 마주칩니다. 그런데 애들이 부르는 노래 내용이 중요합니다. 달은 밝지만 왕은 밝지 못하다며 박태보(충신)를 벌하고 왕비를 내쫓은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있어요. 임금의 부당함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심지어 심산 궁곡에 들어가 성군을 기다리자며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자 왕이 애들 이름을 물으려 하지만, 아이들이 도망가고 왕은 그냥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에 주목하는 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2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정답 : ②

① 태보는 형옥에서 금부로 이송해 줄 것을 자청했다.

→ 형옥에서 금부로 이송하는 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박태보가 자청한 게 아니에요.

② 부인은 꿈에서 학발의관을 갖춘 사람들을 보고 놀라 꿈을 껴다.

→ 네, 꿈에서 박태보를 만난 후 학발의관을 갖춘 어린 제자를 만나고 ‘놀라’ 깨달은 후 꿈에서 깹니다.

③ 대감은 아들의 주검을 집으로 데려와 초종례를 극진히 지냈다.

→ 집으로 데려와 초종례를 지내는 게 아니라, 직접 과천으로 가서 초종례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와 장사를 지내요.

④ 상은 노래의 내용을 알기 위해 아이들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 그냥 본인이 심란해져서 애들 이름을 묻고자 했을 뿐입니다. ‘노래의 내용을 알기 위해’ 아이들에게 이름을 묻는 게 아니에요.

⑤ 형조 판서는 상의 명령대로 태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고했다.

→ 자세히 보고한 게 아닙니다.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대강’ 올렸습니다. 마지못해 대충 올렸다고 보아야겠네요.

29. 윗글에 제시된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①

① ‘금부’는 임금이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이고, ‘한 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다.

→ 임금은 박태보를 ‘금부’로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금부’는 임금이 권위를 실현하는 곳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곳’은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 비판당하고 있는 입장인 걸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물으려는데 애들이 도망가서 이름마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이니깐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② ‘진도’는 임금에게 정배받은 태보가 향해야 하는 곳이고, ‘외관’은 임금에게 내쳐진 민 중전이 거쳐야 하는 곳이다.

→ 네, 진도로 정배를 가고 있으니 ‘진도’는 태보가 향해야 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리고 민 중전(왕비)를 ‘외관’으로 내친다고 하니, 민 중전이 거쳐야 하는 곳이 맞네요.

③ ‘이화촌’은 부인이 시부모에게 직접 문안하는 곳이자 태보가 하인을 보내 부모에게 문안하는 곳이다.

→ 시부모에게 문안을 하러 가면서 ‘이화촌’에 개가 짖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문안을 하는 공간이라 볼 수 있겠네요. 역시나 같은 맥락에서 박태보의 하인(동일)이 주는 한림의 편지를 받는 공간이기도 해요. 이때 편지에서 부모님한테 자기 생각말고 잘 지내라고 하니, 하인을 통해 편지로 문안을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④ ‘과천’은 태보가 ‘진도’로 가는 경유지이자, 태보의 소식을 받은 대감이 ‘이화촌’을 떠나 향하는 지점이다.

→ 태보는 ‘진도’로 정배를 받은 후 그곳으로 가다가 ‘과천’에서 죽습니다. 박태보의 편지 내용을 보면 ‘천 리 원정’에 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천 리 원정을 간다는 건 진도로 정배를 간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과천에서 구천에 들어간다고 해요. 즉, 진도로 가다가 과천에서 죽는 그런 상황을 나타냅니다. 역시나 대감 또한 이 소식을 듣고 과천으로 떠나죠. 또 이화촌에서 박태보의 편지를 받고 출발을 하니, ‘이화촌’을 떠난다는 말도 맞습니다.

⑤ ‘심산궁곡’은 ‘성내 성외’와 대비되어 임금을 피하려는 백성의 마음이 투영된 공간이다.

→ ‘성내 성외’는 임금이 돌아다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심산궁곡’은 왕을 피해서 들어가 성군을 기다리라고 하는 공간이죠. 임금이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대비도 되고, 부덕한 임금을 피해 성군을 기다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3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③

- 둘 다 박태보의 위기와 관련된 장면입니다. [A]는 위기에 처한 박태보를 다른 사람들이 위로하는 장면이고 [B]는 박태보가 죽더라도 충신으로서의 뜻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장면이죠.

① [A]에서 태보의 위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제원들의 탄식은, [B]에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태보의 자책과 대비된다.

→ [A]의 제원들은 박태보의 위기가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A]에서도 박태보가 사경이 된 상황에 대해 ‘우리도 한 탓’이라고 해요. 그래서 박태보만 이런 위기에 처한 게 죄스럽고 민망하다고 합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원들을 박태보가 [B]에서 위로하죠. 그런데 [B]에서 박태보가 자책을 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 ② [A]에서 태보가 받은 제원들의 위로는, [B]에서 삶을 도모하여 무죄를 소명하겠다는 태보의 결심으로 이어진다.

→ [B]에서 태보는 무죄를 소명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충신 노릇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죠.

- ③ [A]에서 제원들이 칭송하는 태보의 강직함은, [B]에서 소신을 지키겠다고 하는 태보의 다짐에서 확인된다.

→ [A]에서 태보에게 '막중한 충'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죽기를 각오하고 간언을 하는 박태보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런 박태보의 태도는 [B]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자기가 간언을 하겠다는 뜻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해요. 정답입니다.

- ④ [A]에서 제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태보의 심리적 상처는, [B]에서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된다.

→ [A]에서는 갈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원들이 태보를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럼 [B]에서 그 갈등이 해소된다는 것도 당연히 틀린 말이에요.

- ⑤ [A]에서 제원들의 말을 통해 드러난 태보의 후회는, [B]에서 가족들을 향한 태보의 말에서 반복된다.

→ [A], [B] 모두 태보가 후회하는 대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간언을 하던 자기 뜻을 관철시키죠.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⑤

— <보 기> —

「박태보전」은 숙종 대의 실존 인물 박태보의 삶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박태보는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나는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승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는 가족과 국가에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음으로써 **도덕적 영웅**으로 고양된다. 이때 다양한 서사 장치들은 사건의 입체적 전개에 기여한다.

- ① 하늘이 태보를 무죄로 판명하여 전고 충신을 따르게 함을 몽사로 드러내어, 태보가 윤리적 명분 면에서 인정받은 도덕적 영웅임을 보여 주는군.

→ 중략 이후의 꿈 장면에서 태보의 발화를 보면, '내 무죄하여 탕당한 청천이 감동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하늘이 태보의 무죄를 판명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늘이 감동해서 '전고 충신을 따라 황성으로 구경 간다'는 말이 나와요. 즉, 하늘이 자신(태보)의 무죄를 판명하고, 전고 충신을 따르도록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태보가 도덕적 영웅임을 인정받는다고 볼 수 있죠.

- ② 국은을 갚지 못하고 죽는다는 태보의 한탄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승고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했음을 보여 주는군.

→ 박태보는 결국 왕의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을 편지에서 '국은을 갚지 못하옵고'라는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즉,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요.

- ③ 만세 후에도 부자지정을 바라는 태보의 염원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서 조차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 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네, 편지로 부모님에게 자기 생각 말고 잘 지내라는 안부를 전합니다. 죽은 이후에도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있어요.

- ④ 주상이 밝은 달의 속성과 대비되는 불명한 인물임을 노래를 통해 제시하여, 백성들이 주상을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하여 신임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군.

→ 너무나 당연한 선지입니다. 임금은 달과 다르게 '불명'한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밝지 않다는 뜻이니 부도덕하다는 말이죠. 또, 그렇게 충신을 죽이고 왕비를 쫓아낸 상황에 대해 '한심하고 가련하다'라고 표현하며 성군을 기다리자고 합니다. 왕을 전혀 신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 ⑤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어, 태보가 기우는 국운을 회복한 영웅으로 추대되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군.

→ 태보는 기우는 국운을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간언을 했지만 왕비를 환궁하는 데에 실패하고 왕의 잘못을 깨우치는 데에도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보기>에 제시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한다는 내용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물론 편집자적 논평이 제시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백성들이 슬퍼한다는 내용이지, '국운을 회복'한 영웅으로 추대되어 지지 받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32~34]

— <보 기> —

「탄궁가」는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 낸 작품이다. 한편 「농가」는 곤궁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 낸 작품이다.

작품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주 쉬워요. (가)는 궁핍한 사대부의 삶, (나)는 이상적인 농촌상을 그려낸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맞게 작품을 읽으시면 됩니다.

(가)
 춘일(春日)이 지지(遲遲)하여 삐꾸기가 보채거늘
 → 춘일(봄)이 지지하여 삐꾸기가 보채거늘
 동린(東隣)에 쟁기 얻고 서사(西舍)에 호미 얻고
 → 동린에 쟁기 얻고 서사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곡식)
 울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 울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가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한아(寒餓)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 한아한 식구 이리하여 어찌 살겠는가 (궁핍함)

(중략)

베를 북도 쓸데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 베를 북도 쓸데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술 시루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 술 시루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술이 녹이 슬었음 = 궁핍함)
 세시 삭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 세시 삭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서 올리며
원근 친척 내빈왕객(來賓往客)은 어이하여 접대 할꼬
 → 손님은 어떻게 접대할까 제사상을 제대로 올리 지 못하고 손님 접대마저 어려운 상황 = 궁핍함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많고 많다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여 여의려뇨
 → 이 원수 궁핍함의 귀신을 어찌하여 여의겠느냐 (궁핍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함)
 술에 후량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 술에 후량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 좋은 날 좋은 때에 (궁귀를)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원노(怨怒)하여 이른 말이
 →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며 하는 말이
 어려서나 늙어서나 희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 함께하여
 → 어려서나 늙어서나 희로우락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월 줄이 없었거늘
 → 죽거나 살거나 떨어질 일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 어디 가 누구의 말을 듣고 가라고 이르는가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헐박커늘
 → (궁귀가)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헐박하거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궁귀)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유신하여 나를 아니 버리거든
 → 네(궁귀) 혼자 유신하여 나를 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일려냐
 → 위협으로 피하고 잔피로 여의겠느냐 (궁핍함에서

벗어날 수 없음)

하늘 삼긴 이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 하늘이 만든 궁핍함을 설마한들 어찌하겠는가

빈천도 내 분(分)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 빈천(궁핍함)도 내 분이니 서러워 해서 무엇하겠는가 (궁핍함을 받아들임)

- 정훈, 「탄궁가」-

<보기>에서 본 대로 화자의 궁핍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건, 화자의 궁핍한 처지를 ‘궁귀’와 대화하는 상황으로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화자가 궁귀의 말에 설득당하는 것으로, 궁핍한 상황에 체념하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이 장면만 잘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나)

서산에 돋을별 비추고 구름은 느지막이 내린다

→ 산에 별이 비추고 구름은 느지막이 내린다

비 온 뒤 묵은 풀이 뉘 밭이 우거졌던고

→ 비 온 뒤 묵은 풀이 누구 밭이 우거졌는가

㊸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 두어라 차례를 정해 둔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제1수>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이른 벼의 패는 모가 곱
 난가

→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이른 벼의 패는 모가 곱다

오늘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

→ 5, 6월이 언제 가고 7월이 반이다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

→ 아마도 하느님 너희를 만들 때 날 위해 만들었다

<제7수>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사람은 절이채 친다

→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사람은 절이채 친다

새 밥 익을 때에 새 술을 걸러서라

→ 새 밥 익을 때에 새 술을 걸러라

아마도 밥 들이고 잔 잡을 때에 흥에 겨워 하
노라

→ 아마도 밥 들이고 잔 잡을 때에 흥에 겨워 한다

<제8수>

- 위백규, 「농가」-

나름대로 이상적인 농촌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밭을 매는 순서를 정해서 차례대로 밭을 매고, 새 밥이 익을 때 잔을 들고 흥겨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핍하거나 어려운 처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흥에 겨운' 모습이 제시됩니다.

32.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 ①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을 활용해 화자의 인식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 궁귀와의 대화에서 인식 전환이 드러나긴 하지만, 계절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봄'이라는 계절 하나만 드러나요.

- ②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나열하진 않습니다. 계절감이라고 할만한 것 자체가 춘일이나 벼꾸기 정도 뿐인 걸요. '춘일'에 '벼꾸기'가 보챌다는 것 외에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구절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 ③ 특정 계절의 풍속을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 특정 계절의 '풍속'과 시선 이동 모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단 작품에서 드러난 계절이 '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작품에서 봄의 풍속을 드러내진 않죠.

- ④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네, '봄'을 배경으로 해서 화자의 궁핍한 처지를 보여줍니다. 정답이네요.

- ⑤ 계절의 순환을 중심으로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

→ 계절의 순환도, 자연의 섭리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계절적 배경은 '봄' 뿐이고,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궁핍한 처지가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33.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⑥

- ① [A]에서 '술에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 '궁귀'에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다.

→ 네, 궁귀에 대해 예우를 갖추고 개를 쫓아 내려고 하는 대목입니다.

- ② [B]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세 다래 네 다래'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5, 6월이 지나고 7월이 왔다고 하니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면화가 피고 때는 모가 곱다고 표현하고 있으니 만족감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A]에서 화자는 '이내 궁'과의 관계를,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 [A]에서 '이내 궁(궁귀, 궁핍함)'은 화자와 희로우락을 같이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화자를 버려도 궁귀만은 버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궁귀(궁핍함)가 자기의 분이라며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B]에서도 하느님이 너희를 만들 때, 날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느님을 언급하면서 '너희'와의 관계를 노래하니, 운명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④ [A]에서 화자는 '옳도다'라는 응답으로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패는 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네, [A]에서 화자는 궁귀에게 설득당하며 궁귀의 말을 수용합니다. 궁핍함을 받아들일겠다는 태도로 이해했죠. 그리고 [B]의 화자는 5, 6월이 언제가고 7월이 '반이로다'라고 합니다. 즉, 시간이 그만큼 빨리 흘러갔다는 것에 감탄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는 모가 '곰다'고 하니, 기대감 또한 해석될 여지가 있죠.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확의 시기가 다가와, '패는 모'에 기대감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 ⑤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 둘 다 예찬하는 어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A]는 그냥 하늘이 만든 궁핍함을 받아들일겠다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B]도 하느님이 모를 만들었다고 할 뿐 하나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34. <보기>를 참고할 때,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③

- ㉠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 ㉡ 솔 시루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 ㉢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 ㉣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 ㉤ 아마도 밥 들이고 잔 잡을 때에 흥에 겨워 하노라

— < 보 기 > —

「탄궁가」는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 낸 작품이다. 한편 「농가」는 곤궁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 낸 작품이다.

- ① ㉠은 파종할 볍씨를 쥐가 먹어 버린 상황을 제시해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실감나게 그려 낸다.

→ 네, 화자가 일용할 곡식을 쥐가 먹어서 먹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가난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 ② ㉡은 솔과 시루가 녹슨 상황을 제시해 끼니조차 잇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을 부각한다.

→ 네, 작품 해설에서도 언급했던 포인트입니다. 솔 시루를 '버려두니' 붉은 빛이 되었다고 해요. 붉은 빛이 됐다는 건 녹이 슬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밥도 제대로 못 해먹는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니, 궁핍함을 부각하는 표현이네요.

- ③ ㉔은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을 드러낸다.

→ 사회적 책임을 내려 놓는다는 해석을 이끌어낼 만한 구절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더라도, 제사상을 못 올리고, 손님을 맞이할 수 없는 궁핍한 상황을 드러내요. 제사를 포기하거나 손님 맞이를 포기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책임을 내려 놓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④ ㉕은 받을 땐 때 예정된 차례에 따라야 함을 나타내어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로 여기는 관점을 드러낸다.

→ 네, 차례대로 해야 한다는 구절은 사회적 약속을 존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회적 약속을 존중하는 모습은, <보기>에 따라 공동체 발전을 위한 방도로 볼 수 있죠.

- ⑤ ㉖은 먹을거리에 부족함이 없이 즐거운 향촌 구성원의 모습을 통해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을 보여 준다.

→ 밥도 있고 술잔도 있습니다. 먹을거리가 풍족합니다. 그러면서 흥겨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농촌상이라고 볼 수 있죠? 먹을 것도 많고 그걸 즐기고 있으니깐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